

2월 실국장회의 모두말씀자료(시장님)

'21.2.4.(목) 14:00 / 온라인PC영상회의

□ 인사말씀 및 코로나19 대응 격려

- 어제 저녁 대설로 인해 시민들께서 교통정체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와 교통사고도 없었음.
- 어제 약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한파주의보와 동파 등 상황에 대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잘 대응해주시기 바람
- 지난 달, 깊은 고민을 담아 실·국별 업무보고를 준비해줘서 고마움.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충분히 느꼈음.
- 더불어,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통해 정부 지원에 더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반도 평화협력벨트의 중심에 서게 될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착공하는 등 성과가 있는 1월이었음.
- 최근 코로나19도 우리 시의 적극적 방역 조치와 시민들 협조로 우리 시는 코로나 19 방역에 모범을 보이며 안정을 되찾고 있었음.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도 다시 높아지고 있어 설 명절까지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임. 시민들, 의료진, 공직자 모두 많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서로 조금씩 더 격려하며 함께 노력했으면 함.

□ 설 연휴 민생대책 집중점검

- 올 설 명절은 예년과 달리 설 특수가 실종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큼.
- 우리가 마련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시민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속도'에 집중해야 함.

- 마른 화초는 하루, 이틀 차이로 말라죽느냐, 살아나느냐가 결정됨. 우리 지원대책도 마찬가지임. 가장 절실한 분들께서,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관련 실·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람.
- 아울러 현장에서의 피드백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람. 만족하고 계시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실·국장님들이 직접 꼭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보고해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통화 등을 통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 보고해주시기 바람. 항상 현장에 답이 있음을 명심하고, 현장행정을 실천해주시기 바람.

□ 설 연휴 방역 등 안전대책 집중점검 및 당부

- 이번 설 연휴기간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 준수와 동시에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각 분야별 안전대책을 준비하였는데, 마련한 대책들이 시민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한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차 점검 바람.
- 특히 이번 설이 간신히 확산세를 잡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유행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인 만큼 방역은 필수이자 기본이 되어야 할 것.
- 3차 대유행의 경험을 떠올려 또다시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영상통화를 통한 설 안부인사와 차례지내기, 온라인 성묘 등 비대면으로 명절모임을 해주시기 바람.
- 아울러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인천가족공원 온라인·비대면 성묘를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편하신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람.
- 취약계층과 시설 관련 대책, 화재예방, 한파·제설대응에도 실·국장 책임 하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 준비한 대책과 대응체계를 시민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없을 것.
홍보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바람.

□ 청렴 강조

- 명절 때가 되면 항상 공직자의 청렴 부분을 생각하게 됨.
2020년 우리 시 청렴도가 3등급이었음.
청렴이 갖춰지지 않은 공직자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
실·국장들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인천시 청렴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연휴노고 격려

-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간 노고가 많았던 공직자 여러분들이 재충전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함.
물론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언행을 통해
청렴하고 모범이 되는 멋진 공직자의 모습 또한
연휴 기간 잊지 말기 바람.
- 연휴에도 방역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선배,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도 있음.
이분들에 대해서는 늘 감사와 미안함이 있음.
건강을 잘 챙기면서 업무에 임하기를 바라며,
이분들의 노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격려해주기 바람.
- 이른 설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함.(웃음)

/끝/